

기획연재 Projected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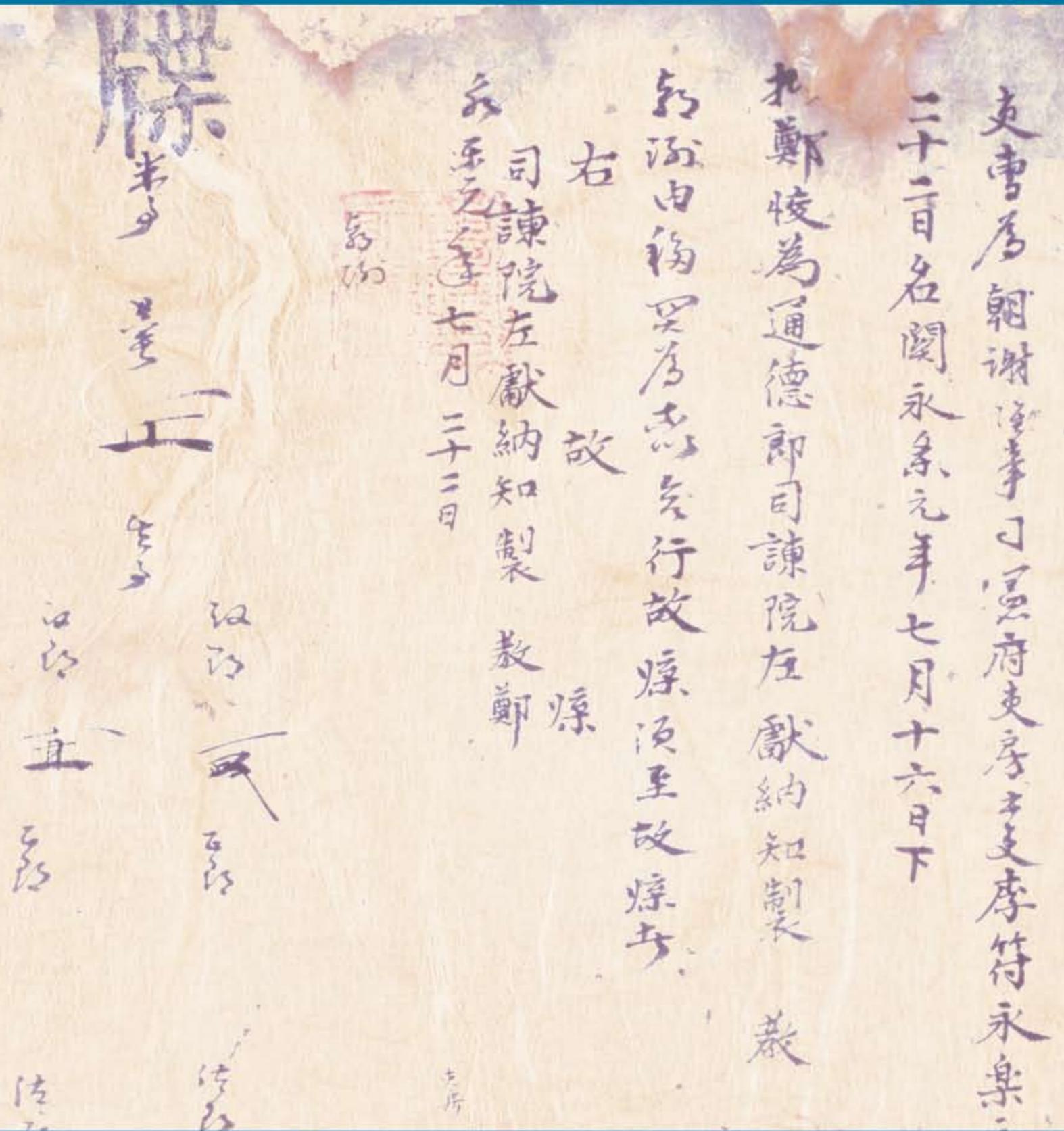
# 기록과 사람(人) ; 기록을 남긴 사람들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기록자, 서리(書吏)

전경목\_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창숙, 선비정신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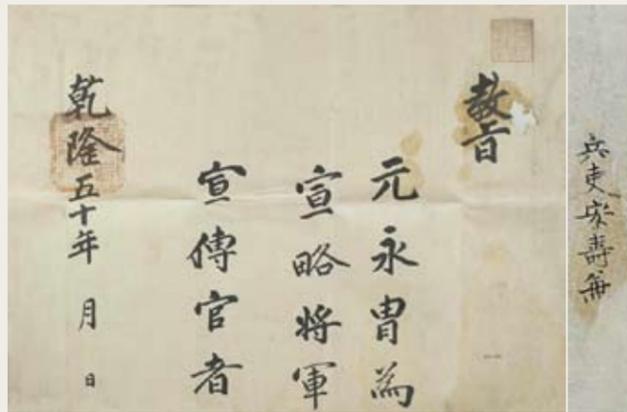
김형목\_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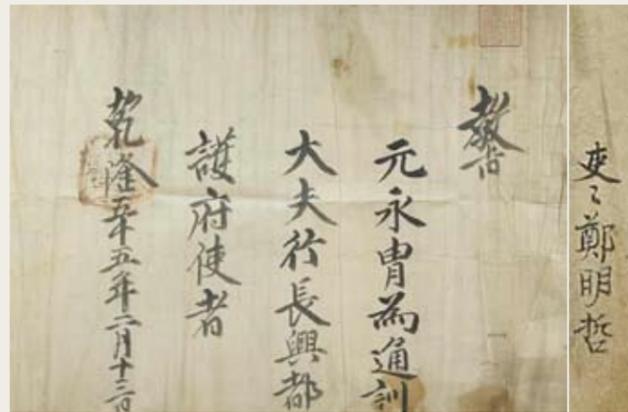
#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기록자, 서리(書吏)

글.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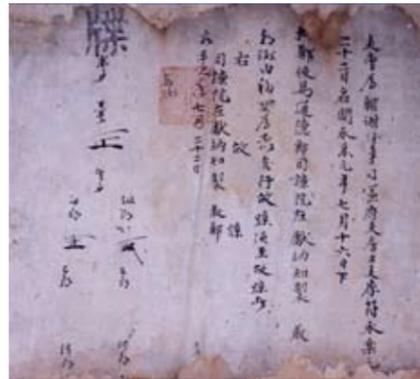
중앙부서에 근무했던 서리들은 많은 기록을 남겼으나 그들은 누구이며, 어떠한 기록들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번에는 이들에 대해 살펴보자. 조선시대 작성된 문서 가운데 관리임명장이 가장 잘 보존이 되어 왔다. 관리임명장을 보통 고신(告身)이라고 하는데 자기 조상의 행적이거나 가문의 명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각 가문에서는 이를 더욱 소중하게 보관해 왔으며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전해지고 있다. 관리임명장은 거기에 쓰인 내용이 길지도 않으며 또 다른 문서와 비교해서 내용 파악이 쉽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해하고 있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고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모르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매우 많다. 우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원영주(元永胄)의 고신을 살펴보자.



01\_ 병조에서 원영주에게 발행한 교지



02\_ 이조에서 원영주에게 발행한 교지



03\_ 1403년(태종 3)에 국왕이 정전(鄭俊)을 사간원(司諫院) 좌헌납(左獻納) 겸 지제교(知製敎)로 임명한다는 임명장

원영주는 건륭 50년 즉 1785년(정조 9)에 '선략장군 선전관(宣略將軍 宣傳官)'에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인 건륭 55년 곧 1790년(정조 14)에 '통훈대부 행장흥도호부사(通訓大夫 行長興都護府使)'에 임명되어 위의 고신을 받았다. 그런데 전자의 배면에는 '병리 안수겸(兵吏 安壽謙)'이 그리고 후자의 배면에는 '이리 정명철(吏吏 鄭明哲)'이 적혀 있다.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문관의 임명장은 이조(吏曹)의 서리(書吏)가, 그리고 무관의 임명장은 병조(兵曹)의 서리가 각기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리'는 '이조의 서리'를, 그리고 '병리'는 '병조의 서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실은 이조나 병조에서 근무하는 모든 서리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색 서리만을 지칭하였다. 즉 '이리'의 정식 명칭은 '이조정색서리(吏曹政色書吏)'이며 '병리'는 '병조정색서리(兵曹政色書吏)'였다.

그런데 서리의 이름이 관리의 임명장에 등장하는 것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조선 초기에는 서리의 이름이 관리 임명장의 앞면에 버젓이 기록되었다. 우선 조선 초기의 임명장을 하나 살펴보자.

이처럼 문무 관리들의 임명장 전면에서 서리의 이름이 쓰여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기반이 점차 굳건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지위가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다. 마치 지방에서 향리의 지위가 하락하는 것처럼 중앙에서 서리의 지위도 그러했다. 그 결과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에 이름을 써넣거나 당당하게 서명을 하던 예전의 모습들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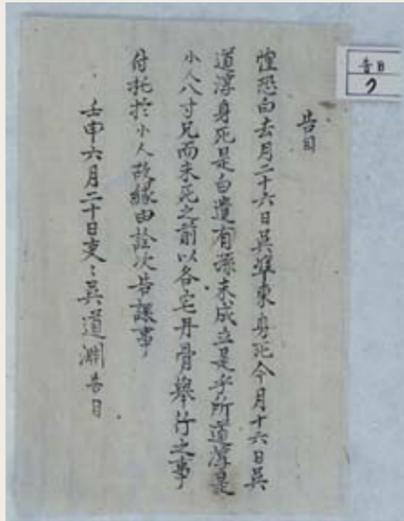
그러면 서리의 이름이 고신의 전면에서 사라진 이후 영영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리의 이름은 뒷면의 한 모서리에 조그마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고신의 앞면에서 사라진 서리의 이름이 뒷면 한쪽 모퉁이 하단에 슬며시 나타난 것이다. 서리의 이름이 문무관리에게 발급되는 고신의 전면에서 사라지지 얼마 되지 않아 배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이조나 병조에서 고신을 작성하는 서리에 대해 주목하는 까닭은 이들이 고신 작성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이 곧 지방 양반들과 대대로 관계를 맺는 단골리(丹骨吏)이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는 지방 출신의 관리나 양반들은 이조나 병조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서리들과 밀접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풍조가 있었다.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중앙의 인사 동향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를 담당하는 서리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교분을 맺으려고 하였으며 또 한 번 맺어진 인연을 소중하게 관리하여 대대로 연망(緣網)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대대로 교분을 맺는 서리들을 '단골리'라고 불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문서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다음의 첫 번째 문서는 전라도 해남의 해남 윤씨가에 소장되어 있으며 임신년(壬申年) 곧 1812년(순조 12)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리나 병정리를 주목하는 까닭

위의 임명장은 '고첩(故牒)' 또는 '조사첩(朝謝牒)'이라고 불리는 데 조선 초기에 작성되었던 관리의 임명장으로, 1403년(태종 3)에 국왕이 정전(鄭俊)을 사간원(司諫院) 좌헌납(左獻納) 겸 지제교(知製敎)로 임명하면서 그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당시에 그의 품계(品階)는 정 5품 통덕랑(通德郎)이었다. 그런데 정전의 고첩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이 고첩에 서리가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맨 첫 줄의 '사헌부 이방서리 이부(司憲府 吏房書吏 李符)'와 일곱째 줄 맨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이방(吏房)□□□'가 그것이다. 후자는 이조의 '이방영사 ○○○(吏房令史 ○○○)'이었을 것이나 보전 과정에서 아랫부분이 마모되어 없어

진 것으로 추정된다. '영사'는 서리의 또 다른 명칭이었다. 물론 이 고첩의 서식(書式)은 앞에서 살펴본 원영주 고신과는 크게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리의 이름이 고신의 전면(前面)에 버젓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된다.



## ○ 고 목

황궁하옵게도 말씀드립니다. 지난 달 26일에 오준동(吳準東)이 사망하고 이번 달 16일에 오도순(吳道淳)이 연이어 사망하였으며 손자가 있으나 아직 어려서 서리로 임명받지 못했습니다. 도순은 저의 8촌 형인데 사망하기 전에 그동안 그가 행하던 여러 맥의 단골서리 노릇해주기를 저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이러한 사정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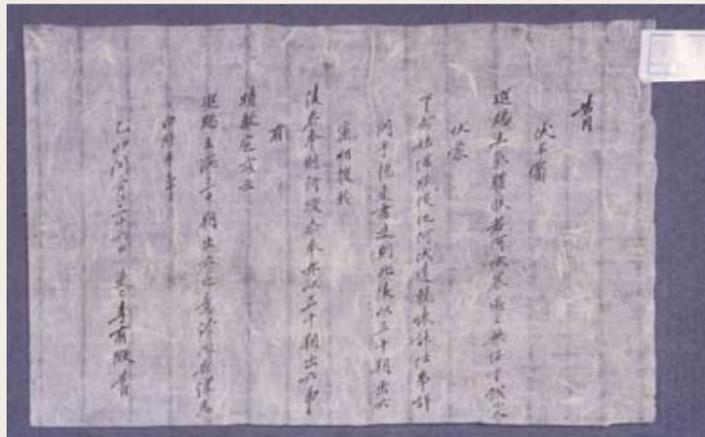
임신 6월 20일 이리 오도연 아림

## ○ 고 목

엎드려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근황이 어떠하신지 살펴지 못했습니다. 나으리(進賜主)의 심신은 어떠하십니까? 엎드려 나으리를 그리는 저의 마음이 구구하오나 나으리께서 저를 보살펴 주시는 정성이 자극하여 제가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나으리의 보살핌을 입어 그럭저럭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다른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드릴 말씀은 나으리의 사환일(仕宦日)을 계산하는 일에 대해서입니다. 담당자(執吏書吏)에게 자세히 문의하였더니 이후로는 30개월만 지나면 6품이 되며 비록 자리를 능참봉(陵參奉)으로 바꾸더라도 바뀐 참봉으로 30개월이 차면 6품이 될 수 있다는 왕의 특명정식(特敎定式)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하오니 나으리께서는 30개월이 차면 6품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연을 말씀드립니다.

을묘년 윤2월 26일 이조 서리(吏曹書吏) 이유휘 아림



위 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오준동과 오도순은 해남 윤씨의 단골리였다. 그런데 이들이 연이어 사망하고 그의 후손은 아직 어려서 서리가 되지 못했다. 그런데 오도순은 사망하기 전에 그의 8촌 동생인 오도연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 단골 집안의 업무를 잘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한다. 형의 부탁을 받은 오도연은 형이 사망하자 곧바로 지방에 있던 형의 단골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자신이 형을 이어 단골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 오준동을 비롯한 세 명의 서리는 인사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해남 윤씨에게 알려주고 또 해남 윤씨들이 관리로서 취임하게 되면 국왕이 그에게 발급하던 각종 고신 등을 작성해 주고 그 배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이리(吏吏) 아무개'나 '병정리 아무개'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 지방 명문가 출신의 문무 관리와 단골리와의 이해관계

이제 고신 수취자와 서리가 어떠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서리들은 지방 양반 출신의 문무관리에게 인사와 관련된 각종 정책이나 정보들을 미리 알려주고 문무 관리들은 서리의 뒤를 봐주

는 등 사적인 관계망을 형성했다. 위에 소개한 두번째 문서는 이와 관련된 것으로 이유휘(李有徽)라는 이조의 서리가 을묘년 즉 1795년(정조 19) 윤 2월에 임홍원(林鴻遠, 1741~1799)에게 보낸 것이다. 임홍원은 후에 홍원(弘遠)으로 개명(改名)하였는데 그의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세계단자(世系單子)를 살펴보면 그는 감역(監役)으로 벼슬살이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역임했던 관직은 가감역(假監役)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감역과 가감역은 모두 선공감(繕工監)에 소속된 관리였으나 가감역은 임시직이었다.

이 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그는 벼슬살이를 시작한 지 조금 지났는데 만일 30개월을 넘기면 '출육(出六)'할 수 있었다. 출육이란 6품에 오르는 것을 말하는데 조선시대 관직 체계에서 6품에 오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6품 이상을 참상관(參上官)이라 하고 6품 이하를 참하관(參下官)이라고 하였는데 6품에 오르면 대신(臺臣)으로 선발되거나 지방의 수령으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급관리들은 6품으로 승진하는 것을 매우 열망하였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승품(陞品) 즉 품계를 올리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였기 때문에 담당자가 아니면 잘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임홍원은 평소에 친분이 있던 이조의 서리인 이유휘를 통해 담당 서리에게 이를 문의하여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유휘는 담당 서리 즉 집리서리(執吏書吏)에게 이를 문의하여 30개월이 지나면 6품에 오를 수 있으며 또 도중에 능참봉으로 벼슬이 바뀌더라도 근무한 일수를 합산하여 30개월만 넘으면 6품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승품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하고 방법이 매우 복잡하였기 때문에 담당 아전의 역할이 매우 컸다.

### 단골리에 대한 보상

우리는 위에서 단골리들이 지방 명문가 출신 관리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단골리들은 이와 같이 관리들에게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자문하고 관리들의 까다로운 청탁들을 세세하게 들어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무런 대가없이 그저 인간적인 정이나 집안 대대로 맺어온 교분 때문에 이러한 청탁들을 들어주었을까? 물론 인간적인 신뢰가 바탕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였다.

황윤석이 쓴 『이재난고(頤齋亂藁)』를 살펴보면 그는 단골리인 김문흠에게 녹봉을 대신 타서 관리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자문에 대한 보상이었다. 단골리는 녹봉에서 필요한 여러 경비들을 덜어내고 관리했는데, 이자놀이를 하거나 상업에 투자하여 치부(致富)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물론 모든 관리가 단골리에게 녹봉을 대신 수령해서 쓰도록 하지는 않았다. 황윤석의 경우에도 자신이 장릉참봉으로 영월에 내려가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해진 부득이한 조처였지만, 관리들은 단골리로부터 많은 자문과 정보에 대한 대가로 선물이나 돈을 그들에게 주었다.

관리들은 이와 같이 단골리에게 선물이나 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수령 등으로 부임할 때에는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당참전(堂參錢) 등을 주기도 했다. 당참전은 당참채(堂參債)라고도 하는데 수령으로 발령을 받거나 혹은 인근 고을 수령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단골리에게 주는 돈이었다. 황윤석이 목천현감으로 재임할 때의 단골리는 장도흥(張道興)과 그의 아들 장효언(張孝彦)이었는데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효언이 이 돈을 받으러 직접 목천으로 내려왔는데 목천에서는 전례에 따라 25냥을 주었다. 당참채는 고을의 재정 형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듯하다. 인근의 예산현에서는 30냥을 주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렇게 추측된다. 황윤석뿐만 아니라 다른 관리들도 새로운 관직에 임명될 때마다 이조의 서리에게 필채(筆債)를 주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 하선동력(夏扇冬曆)

서울에 사는 단골리와 지방 출신의 전현직 관리 및 지방에 거주하는 예비 관리[양반 자제]들과의 사이에 끈끈하게 맺어진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용어로 ‘하선동력(夏扇冬曆)’이라는 말이 있다. 단오 무렵인 여름에 관리들이 단골리에게 부채를 선물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동지 즉 겨울에 단골리들이 책력을 선물하던 풍습을 가리킨 말이다. 1767년(영조 43) 12월에 황윤석의 단골리이던 김문흠이 각종 책력 즉 청장력(靑粧曆)과 칠정력(七政曆) 각 1책과 중력(中曆)과 소력(小曆) 각 10책 등을 장릉참봉이던 황윤석에게 바치고 있다. 물론 김문흠이 이와 같이 많은 책력을 황윤석에게 준 이유는 그가 이미 여러 달 전에 김문흠의 아버지 김덕준에게 특별히 요청한 바가 있기 때문인데 아무튼 겨울에는 단골리들이 관리들에게 책력을 선물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 하선동력에 대한 설명이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자.

동지에... 관상감(觀象監)에서는 달력[曆書]을 만들어서 국왕에게 올리는데 국왕은 그 중에서 황장력(黃粧曆)과 백장력(白粧曆)을 모든 관원에게 나누어 주되 『동문지보(同文之寶)』란 어새를 찍어 주었다. 각 사(司)에도 모두 나누어 받는 몫이 있다. 이때 각 사(司)의 이서(吏胥)들은 각기 친분이 있는 사람을 두루 방문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조의 아전들은 자기가 도맡아 고신을 써준 사람이 수령으로 나가게 되면 그로부터 당참전(堂參錢)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답으로 예에 따라 이때 청장력(靑粧曆) 한 권을 바친다. 서울의 옛 풍속에 관리가 단옷날에 부채를 아전에게 나누어 주고 아전이 동짓날에 달력을 관리에게 바쳤는데 이를 ‘하선동력’이라 한다. 그러면 그 관리는 이 달력을 고향의 친지나 묘지기 및 농장관리인들에게 나누어 준다.

황윤석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름에 단골리에게 부채를 주지 않고 녹봉을 대신 받도록 했으며 김덕준에게 그토록 많은 책력을 요청한 이유는 그가 책력을 나누어 주어야 할 친척이나 고향의 친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조선 후기에는 여름에 관리들이 단골리에게 부채를 선물하고 겨울에는 단골리가 관리들에게 책력을 선물하던 풍조는 그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조선 후기 중앙 서리의 지적 수준과 활동상

『이향견문록』이나 『호산외기(壺山外記)』 등을 살펴보면 조선 후기에는 중앙 관리의 서리들이 통사나 사서를 읽어 유교적 지식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제자백가 등도 두루 읽었으며 글을 잘 지어 이름을 널리 알린 서리들이 많았다. 병조의 서리로 18년 동안 근무했던 박수천(朴受天)은 『중용』과 『대학』 읽기를 즐겨 평생토록 그치지 않았으며 사재감(司宰監) 서리였던 김익춘(金益春)은 책 읽기를 좋아하여 서리가 된 후 손수 『논어장구』를 베껴 항상 소매에 넣어두었다가 공무를 보는 틈틈이 이를 보았는데 동료들이 눈총을 주었으나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처음에 승정원 서리였다가 정조에게 발탁되어 규장각의 서리가 된 유광진(劉匡鎭)은 평생토록 독서를 좋아해 수많은 책을 두루 읽었으며 시가 농려(穠麗)하여 낭송할만하다는 평을 받았다. 규장각 서리였던 박윤묵은 독서를 좋아했고 시를 잘 지었으며 글씨로 일가를 이루었다고 평가되었는데 그는 위에서 소개한 박수천의 손자였다.

조선 후기 중앙부서의 서리들은 자신들이 담당하던 업무에도 커다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

이 담당했던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무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여 일종의 편람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전직(轉職) 등으로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거나 혹은 근무 도중 생소한 일에 부딪혔을 때마다 여러 법전을 살펴서 관련 규정이나 사례 등을 확인한 후 업무를 처리하려하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사전에 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규와 시행세칙 등을 법전 등에서 발췌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여러 서적에서 수집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편람을 편찬한다면 자신 뿐만 아니라 동료나 후배들에게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실무 편람 작성에 앞장 선 인물 중의 하나가 병조의 서리였던 임인묵인데 그가 편찬한 『무과총요(武科總要)』와 『전주찬요(銓注纂要)』가 현전하고 있어서 무과 시행과 무관의 인사 제도 및 운영 등을 연구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임인묵은 각종 법전에서 무인 선발이나 무과 실시에 관련된 각종 규정과 시행세칙 등을 발췌하고 1392년(태조 원년)부터 1820년(순조 20)까지 무려 430년 동안에 실시된 과거 시험 연보(年譜)를 상세히 작성하여 책을 편찬하고 그 이름을 『무과총요』라 하였다. 이 책에는 무과나 시취(試取)와 관련된 각종 법규뿐만 아니라 제도의 연혁, 의식 절차, 문서 양식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실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무과 시험 종류와 시행 일시, 장원 급제자 이름과 급제 인원 및 석차 등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어서 오늘날 무과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보아야 하는 기본 자료로 평가된다.

『무과총요』의 서문에 의하면, 임인묵은 1789년(정조 13)에 음직(陰職)으로 병조의 서리가 되고 3년 후인 1792년(정조 16)부터 무선사(武選司)에 배속되어 무선(武選)과 무과(武科)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때 그는 공무 수행 도중 여가가 생길 때마다 실무와 관련된 규정이나 시행세칙 등을 수집하여 편람을 작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1797년(정조 21)에 전임(銓任) 업무에 종사하면서부터 바빠서 이를 중단하였다가 1810년(순조 10) 봄과 여름에 여가가 생기자 전에 편찬했던 초고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분류하여 3권으로 성책하고 ‘무과총요’라 명명하였다고 한다.

『전주찬요』는 2책으로 1809년(순조 9)에 편찬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의 서문에 의하면, 임인묵은 병조 서리가 된 후 과거와 인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인사와 관련된 제도와 법규가 빈번하

게 바뀌어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틈틈이 자료를 살펴 관련 법규와 세칙 등을 초록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무려 수천 장이나 되었다. 자료를 그냥 묵혀두기가 아까워 본격적으로 관련 서적을 찾아 고금의 내용을 보완하고 빈다한 내용들은 삭제한 후 긴요한 내용만을 선별, 분류하여 체계를 엮느라 보낸 세월이 무려 20여 년이나 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를 완성하지 못하였는데 마침 서리로 다시 취임하여 더욱더 시간을 낼 수 없었다. 그러다가 1809년 여름에 서리에서 물러나 여유가 생기자 이를 상하 2책으로 완성하고 ‘전주찬요’로 이름 지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인사제도는 근본적으로 『경국대전』을 비롯한 『속대전』과 『대전통편』 등 대전체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가 『전주찬요』를 편찬하면서도 우선 이들 법전에서 인사와 관련된 법규와 세칙 등을 발췌하였다. 나아가 법전에 수록되지 않은 사례들은 『수교집록(受教輯錄)』, 『승전등록(承傳謄錄)』, 『초기등록(草記謄錄)』, 『동전공부(東銓公簿)』, 『서전과거등록(西銓科擧謄錄)』, 『문헌비고』, 『형방등록(刑房謄錄)』 등에서 수집하였다. 또 각종 문헌 자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불문율(不文律)과 같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들은 ‘구전유래지정례(口傳流來之政例)’라는 이름으로 수집하여 기록하였다. 그런데 법전 이외의 자료들 즉 『승전등록』이나 『초기등록』 및 구전유래지정례 등은 대부분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전주찬요』는 조선시대 인사 제도를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자료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임인묵 등을 비롯한 서리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누구로부터 글을 배웠는지 등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져 있지 않다. 중앙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일어난 이들을 세세히 기록한 서리에 대해 주목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필자 소개

전북대학교 사학과에서 고문서와 관련한 논문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고문헌을 강의하고 있다. 고문서를 통해 조선시대 사회상과 생활상을 밝히고 마을과 문중 공동체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관심이 있다. 최근에는 미시사적 방법을 동원해서 고문서에 숨겨져 있는 조선시대 다양한 생활상을 드러내 보이고 은밀한 인간 관계망을 조망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저서로는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한다』, 『고문서를 통해서 본 우반동과 우반동 김씨의 역사』,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공저) 등이 있다.